

2012

DIPLOMATIC

WHITE

PAPER





제 3 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

제1절 신아시아 외교	62
제2절 유럽 지역외교	71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83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91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104

제1절

신아시아 외교

신아시아외교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아시아 주요국과의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지난 2년간 구축해 온 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한 하위 분야로 확장시키고 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동·서남아 지역과의 정상교류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호주·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 지역 내 6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경제·통상·에너지·녹색성장·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1. 동북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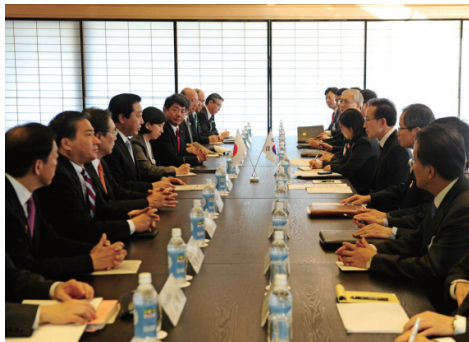
1) 한·일 정상회담

2011년 한·일 양국은 정상간 상호 방문(10.18-19, 12.17-18) 및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5.22), UN 총회(9.21) 등 다자회의 계기에 총4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양국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노다 총리는 취임(9.2) 후 가장 먼저 양자차원의 첫 해외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일 양국관계 발전방안, 북핵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선왕조로서 중 일부를 반환



| 한·일 정상회담(2011.10.19,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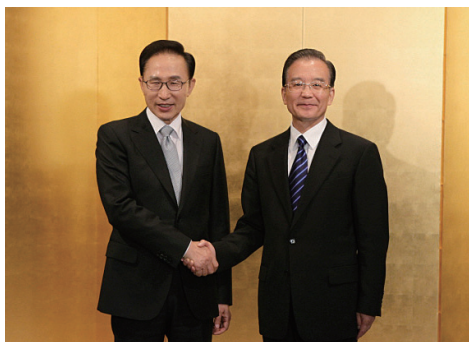
| 한·일 정상회담(2011.12.18, 교토)

함으로써 양국간 문화·인적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교토를 방문하여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일측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실무적 발상보다는 노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김정일 사망 직후인 12.19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 한·중 정상급 회담

2011년 5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및 11월 발리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청소년 교류 증진방안,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방안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G-20 등 국제무



| 한·일·중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2011.5.22, 동경)

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정세,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사 소통과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일·중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칸 나오토 일본 총리 및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함께 2011년 5월 21일-22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2011.5.21-22, 동경)

금번 정상회의는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최되어 2008년 이래 3국 정상회의가 확고히 정례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3국은

정상선언문과 함께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재난관리 협력 문서,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등의 부속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3국 정상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 청소년 미래포럼 신설, Campus Asia 교육교류 사업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사무국 설립 협정의 발효(5.17) 및 초대 사무총장단 선임 등 연내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였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4) 한·몽골 관계 격상

2011년 한·몽골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8.21-23)을 통해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몽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간 구체협력 방안을 담은 중기행동계획을 채택하여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트볼드 몽골 총리의 방한(3.23-26)시에는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협약하였다.

한편 1990년 한·몽골간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에는 한·몽골 장사 씨름대회 등 ‘몽골에서 한국의 해’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몽골 총리 방한 계기에 개막식(3.25)을 비롯한 ‘한국에서 몽골의 해’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양국 국민간 상대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호 친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몽 정상회담(2011.8.21-23, 울란바타르)

2. 동남아시아 지역

1)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2011년 4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의 답방으로 한국을 방문한 나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60년 수교 이래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가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했음을 평가하며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오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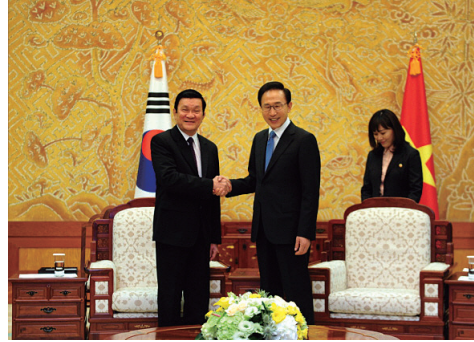
양국 정상은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양국의 경제·통상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지속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산업 및 부처간 협력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2011.4.5, 서울)

2)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8-10 일간 국빈방한한 쩡응 쩐 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 및 실질적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베트남 정상회담(2011.11.8-10, 서울)

양국 정상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및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온 한국과 베트남간 우호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2012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 신뢰 및 우호·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2년을 ‘한·베 우호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교류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년을 지향하며 다양한 상징적 협력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하여 한·베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 (Overall Joint Proposed Plan)’의 협력성과를 승인하고 환영하였으며, 동 종합계획을 향후 추진될 후속 협력사업의 모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3)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한·ASEAN/ASEAN+3/EAS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17일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구체적 합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통상·투자 증진, 방산·인프라·농업 협력 확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네시아 중장기 개발계획에 주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

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은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교역 및 투자 증대 등 경제협력 뿐 아니라, 문화·관광교류 확대 및 청소년 교류 등 인적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2011.11.17, 발리)

4) 한 · 필리핀 정상회담

2011년 11월 20-22일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201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발전상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문화교류 및 양국민 보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양국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필리핀 정상회담(2011.11.21, 마닐라)

특히 양 정상은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농복합산업단지 구축 사업 등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필리핀이 중점 추진 중인 ‘필리핀국가개발계획(Philippines Development Plan)’과 연계한 對필리핀 대외원조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하여 개발원조의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직후 EDCF 기본약정 및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서명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연간 100만에 달하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상대국에 각각 체류중인 양국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 서남아 태평양 지역

1) 한·인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 인도 공화국 대통령은 2011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실질협력력이 크게 진전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자력 협력협정, 인프라 건설 등 경제 협력 및 2011년 ‘한·인도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 이행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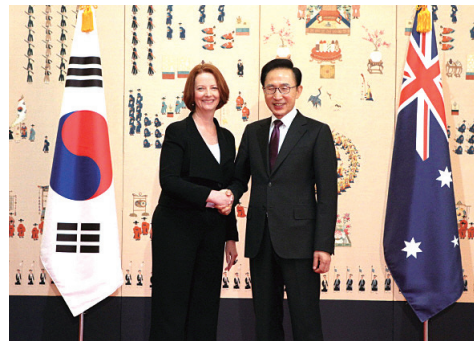
| 파틸 인도 대통령 방한(2011.7.24-27, 서울)

한편 양 정상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호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는 2011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길라드 호주 총리는 한·호 수교 50주년과 가평전투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호 양국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통상, 안보 및 인적교류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왔다는데 공감하고 공동의 가치,



| 호주 길라드 총리 공식 방한(2011.4.23-25, 서울)

상호 존중 및 진정한 우의에 기초하여 향후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11년 ‘한·호 우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양국간 문화·예술 행사와 교류를 통해 양국 인적·문화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중앙아시아 지역

1)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24-25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8월 25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2011.8.24-25, 아스타나)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잠빌광구 탐사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향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의 범위가 에너지·자원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IT,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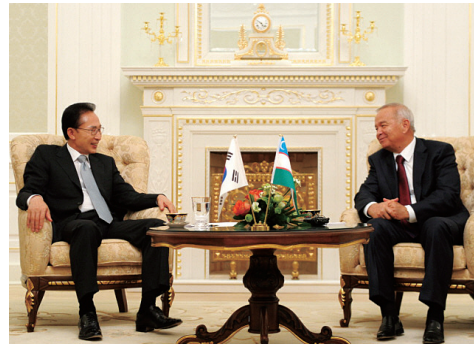
특히 2011년 8월 정상회담 계기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한·카자흐 수교 이래 최대 협력사업인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합자 계약서 및 금융협력 MOU 서명 등 20여건의 다양한 분야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어 향후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 정상은 2010년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 행사와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양국민간 친선과 이해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 분위기가 양국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23-24일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11.8.23-24, 타슈켄트)

양국 정상은 수교 이래 최대 규모 협력사업인 수르길 가스전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환영하고, 향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협력의 범위가 에너지 · 자원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IT, 보건 · 의료, 섬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11년 8월 정상회담 계기에 한 · 우즈베크 한시적 근로협정, 산업 · 에너지 협력파트너십을 위한 MOU,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EPC 계약 등 20건 이상의 정부간 협정 및 기관간 MOU와 기업간 협정서가 체결되어 양국간 실질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2년 한 · 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인적 · 문화적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하여 양국민간 우호 분위기가 양국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한 · EU 정상회담에서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출범한 이래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의 5대 축 가운데 하나인 EU와 양자 및 다자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제2절

유럽 지역외교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EU 및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국가들과 정상외교, 총리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고위정치대화(High Level Political Dialogue)’를 개설하는 등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함으로써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세계 제1위의 단일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 상대인 EU와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1월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하였으며, 이후 6개월간 한·EU간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정상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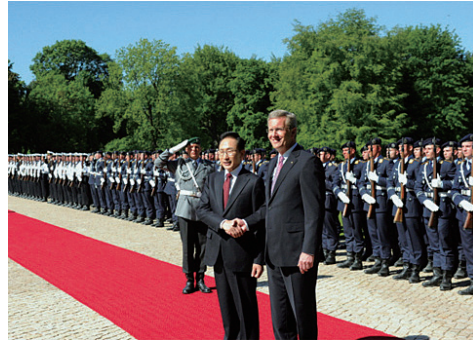
1) 한·독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8-11일간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이 교역·투자 뿐 아니라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상호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는 인식하에 향후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분야의 협력을 보다 심화·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동북아, 유럽, 중동을 포함한 지역정세 및 G20, 기후변화, 개발원조 등 다양한 주요 국제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독일 정상회담(2011.5.9, 베를린)

2) 한·덴마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의 초청으로 2011년 5월 11-12일간 덴마크를 국빈방문, 라스 라스무슨(Lars L. Rasmusse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협력분야를 포괄하는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체결하고,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출범시켜 기후변



| 한·덴마크 정상회담(2011.5.12, 코펜하겐)

화 대응, 녹색성장 장려, 그리고 녹색기술 개발 등에 있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 및 덴마크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3)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14일간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5.13)을 갖고, 양국간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함께 주요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규장각도서 이관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G20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을 발표, 2011년 11월 간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프랑스 정상회담(2011.5.13, 파리)

4) 한·EU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3-4일간 개최된 간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헤르만 반 롬푸이(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11.3)을 갖고, 한·EU 양자관계, 유로존 재정위기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EU 정상회담(2011.11.3, 간느)

양측 정상들은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한·EU FTA’의 정식 발효와 ‘한·EU 기본협정’의 조기 발효를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5) 한·터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2-4일간 프랑스 칸느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11월 4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터키 FTA 체결, 방산 및 원전 협력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실질 협력 진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한·터키 정상회담(2011.11.4, 칸느)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1) 스페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1월 7일 스페인을 방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빠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류 및 투자 증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명이 소속되어 있는 스페인에 우리나라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였다.



한·스페인 총리회담(2011.1.7, 마드리드)

(2) 슬로바키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5월 25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이베타 라디초바(Iveta Radicova) 슬로바키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 우리 진출기업 지원 등 양국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EU FTA 등 한·EU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한·슬로바키아 총리회담(2011.5.25, 파리)

(3) 헝가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또한 동 회의 계기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헝가리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전 협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헝가리가 2011년 상반기 EU의장국임을 감안, 한·EU FTA 등 한·EU 차원에서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헝가리 총리회담(2011.5.25, 파리)

(4) 라트비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6월 8-11일간 양국간 수교 20주년 계기 방한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라트비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라트비아 관계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조선·자동차·물류·신재생



| 한·라트비아 총리회담(2011.6.9, 서울)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5) 불가리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가리아 공식 방문 계기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 불가리아 총리와 2011년 9월 28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주요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총리는 특히 인프라·IT·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문화 및 관광 교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회담 계기 양국은 ‘한·불가리아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한·불가리아 총리회담(2011.9.28, 소피아)

(6) 우크라이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4월 14일 보아오포럼 참석 계기 미콜라 아자로프(Mykola Azarov) 우크라이나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체르노빌 25주기 정상회의 및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우크라이나 총리회담(2011.4.14, 보아오)

그리고 2011년 9월 29일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 계기에 미콜라 아자로프(Mykola Azarov)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농업, 건설, 우주·방산 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총리

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고위인사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2년 수교 20주년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한·우크라이나 총리회담(2011.9.29, 키예프)

(7) 프랑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10월 21-22일간 프랑스 총리로서는 20년만에 방한한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프랑스 총리와 한·프랑스 총리회담(10.21)을 갖고, 유로존 재정위기 대처 방안,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협력, 양국간 교역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프랑스 총리회담(2011.10.21, 서울)

2) 장관급 외교

(1)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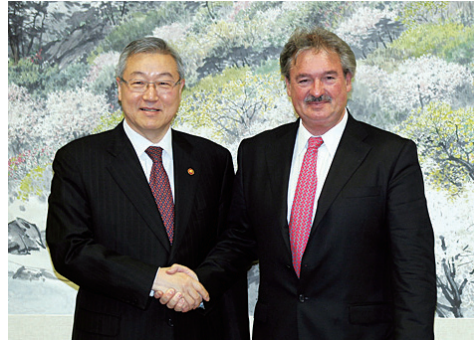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년 2월 10일 에바 비올링 스웨덴 통상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EU FTA, DDA 협상, G20,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하고, 동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2011.2.10, 서울)

(2) 룩셈부르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1년 4월 21-22일간 방한한 장 아셀보른(Jean Asselborn) 룩셈부르크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유럽의 금융센터인 룩셈부르크와 교역 규모 세계 9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간 교역·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룩셈부르크 외교장관회담(2011.4.22, 서울)

(3)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헝가리 공식방문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또한 2011년 6월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야노쉬 머르토니(Janos Martonyi) 헝가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1989년 중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중 최초로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40여개에 이르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국 장관은 교역 및 투자, 원전, 과학기술, 문화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EU차원의 협력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6월 7일 팔 슈미트(Pal Schmitt) 헝가리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및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슈미트 대통령이 현직 IOC 위원임을 감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헝가리의 지지를 요청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을 희망하였다.

(4) 폴란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1년 6월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1989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양국관계를 평가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한·EU FTA 발효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 네덜란드

김 장관은 또한 동 회의 계기 우리 로젠탈(Uri Rosenthal)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11년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특사 네덜란드 방문 등 고위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6) 스페인

김성환 장관은 2011년 7월 13-14일간 방한한 트리니다드 히메네스(Trinidad Jiménez) 스페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회담 직후 사회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여 양국간 교류 및 경제활동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스페인 외교장관회담(2011.7.14, 서울)

(7) 영국

김성환 장관은 2011년 9월 20-24일간 UN 총회 계기 뉴욕을 방문하여 9월 22일 한·영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국제안보협력,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른 통상투자 협력,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리비아 문제, 중동평화 등 양자 현안 및 주요 국제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8) 불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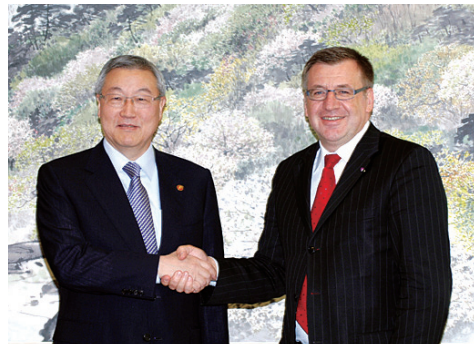
김성환 장관은 상기 한·영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동일 니콜라이 므라데노프(Nickolay Mladenov) 불가리아 외교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인프라 개발, 에너지,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EU FTA 관련 김 장관은 불가리아가 동 협약 비준을 조속히 완료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EU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의 추동력으로 기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한·불가리아 외교장관회담(2011.9.22, 뉴욕)

(9) 벨기에

김성환 장관은 2011년 10월 3-5일간 방한한 바나케르(Steven Vanackere) 벨기에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수교 110주년 및 2010년 양국 정상외 상호 방문 등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한·벨기에 외교장관회담(2011.10.4, 서울)

(10) 아일랜드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011년 10월 13-15일간 방한한 길모어(Eamon Gilmore) 아일랜드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아일랜드 실질협력 강화 및 양국간 통상현안과 국제 금융위기,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1) 알바니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1년 11월 22-23일간 공식방한한 에드몬드 하쉬나스토(Edmond Haxhinasto) 알바니아 외교장관과 11월 23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설, 실질협력 강화 방안(전력/에너지, 광물자원 탐색/개발, 공공부문 민영화 사업, 인프라 건설, 관광자원 개발 등),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12) EU

김성환 장관은 2011년 12월 5일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아프간 국제회의” 참석 계기에 애쉬튼(Ashton)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가진 한·EU 외교장관회담에서, 2010년 10월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간 고위정치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인권·개발협력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EU 외교장관회담(2011.12.5, 본)

3. 지역협력 외교

외교통상부는 유럽지역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문제 등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유럽국가들과 경제통상, 문화, 에너지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 for Co-operation)의 일원으로서 OSCE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OSCE-아시아협력동반자국 회의, OSCE-아시아접촉그룹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여 OSCE가 구축한 지역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동북아시아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해왔다.

2011년에는 OSCE-몽골회의(5월, 울란바토르), OSCE-아시아접촉그룹회의(연간 6회 개최, 비엔나), 제18차 각료이사회(12월, 빌니우스) 등 각급 회의에 적극 참석, 한국-OSCE간 협력 증진방안,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 공유, 동북아에서의 협력 안보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우리의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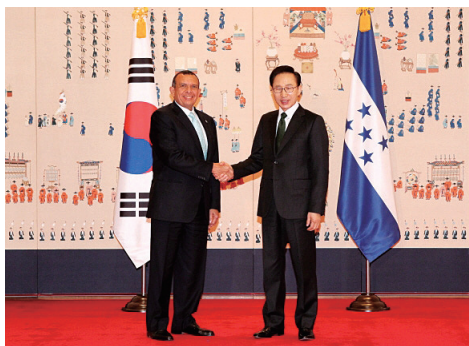
중남미 지역외교

1. 정상외교

1)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1일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Porfirio Lobo Sosa) 온두라스 대통령(2월 20-22일 방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제반분야에서의 우호 협력을 강화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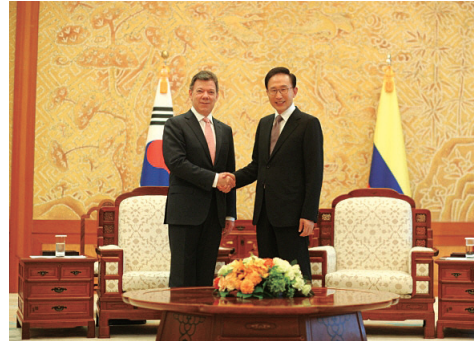
특히 로보 대통령은 교육, 보건 등 공공부문 및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기대하며, 온두라스가 추진중인 특별자치도시 건설에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온두라스 정상회담(2011.2.20-22, 서울)

2) 한 · 콜롬비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Juan Manuel Santos Calderon) 콜롬비아 공화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수교 50주년(2012.3.10)을 앞두고 혈맹관계인 한 · 콜롬비아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 콜롬비아 정상회담(2011.9.15, 서울)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간 통상 ·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한 한 · 콜롬비아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양국간 협력관계를 경제 · 통상분야에서도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토스 대통령은 국빈방한 기간중 KTX 탑승, 울산 SK 에너지, 현대중공업, 부산신항 등을 시찰하는 등 한 · 콜롬비아간 인프라 · 플랜트 및 자원 · 에너지 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에 에너지 · 자원, 인프라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MOU를 체결하였다.

3) 한 · 페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2011년 9월 22일 오안타 우말라 따소(Ollanta Humala Tasso) 페루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 신정부와의 협력 모멘텀 유지 · 확대를 위한 양국 정상의 강한 협력의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 · 페루 FTA 발효 및 양국 간 통상 · 투자 증진 평가, 에너지 · 자원 · 인프라 협력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특사 외교

브라질(1월 1일, 김황식 국무총리), 아이티(5월 14일, 유기준 의원), 페루(7월 28일, 이상득 의원)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이들 신정부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방산 및 에너지 사업 등 관련하여 페루 좌파 신정부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남미 경제협력 특사(5월 7-15일간, 볼리비아·페루) 및 에너지·자원개발 및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특사(7월 29일-8월 2일간, 볼리비아·에콰도르) 파견을 통해 에너지·자원, 방산, 금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였다.

2) 총리 및 장관급 외교

(1) 국무총리 남미 3개국 순방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우마 후우세피(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2011년 GDP(2,48 조불)기준 세계 6위 경제대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지리적 원격성으로 정상 방문이 쉽지 않은 남미 국가들과 관계 강화 구축을 위해 인접국인 파라과이(1,3-4) 및 우루과이(1,4-6)를 공식방문하여 경제·통상, 개발, ICT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2) 장관급 외교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9월 유엔총회 계기 브라질(9.24), 리오그룹(9.23)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11월 하와이 APEC 합동 각료회의 계기에는 멕시코(11.11) 및 페루(11.12)와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한·페루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는 한·페루 항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한 단계 강화시켰다.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져,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HILF-4, 11.30)

계기에 사무엘 산토스 로페스(Samuel Santos López) 니카라과 외교장관, 한·중남미 무역투자포럼(10.21) 계기에 로랑 라모트(Laurent Lamouthe) 아이티 외교장관, 제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6) 계기에 캐롤린 로드리게스-버켓(Carolyn Rodrigues-Birkett) 가이아나 외교장관, 칼 후드(Karl Hood) 그레나다 외교장관, 수루즈라탄 람바찬(Surujrattan Rambachan)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양자 협의회

에콰도르와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6.20, 서울)하였으며, 제2차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4.27, 멕시코시티), 제1차 한·콜롬비아 문화공동위(6.13, 보고타), 제5차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6.24, 산티아고), 제8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6.27, 브라질리아), 제4차 한·페루 경제공동위(10.17, 리마), 제4차 한·우루과이 경제공동위(10.19, 몬테비데오) 개최 등을 통해 개별국가와의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간 협력체인 FEALA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남미지역의 각종 지역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남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한국과 카리브지역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A New Vision for Co-Prosperity)’을 모색하기 위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6일 서울에서 카리브지역 국가 총리 및 장, 차관급 고위인사 12명을 초청하여 ‘제1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을 개최하였다. 카리브 고위급인사들과의 포럼은 우리나라가 카리브의 도미니카공화국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금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기존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카리브 지역의 발전전략, 에너지·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한·카리브간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동 계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안티구아바루다 총리, 그레나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장관 및 수리남 노동기술 개발환경부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에 적극 참여하여 양 지역간 이해 제고 및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조정국('04-'07), 경제·사회 실무그룹 공동의장국('07-'10.1), 정치·문화·교육·스포츠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0.1-'11.8)을 수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10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FEALAC 사이버사무국(Cyber-Secretariat)을 유치하였다.

FEALAC 사이버사무국은 상설 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3월 공식 개소한 이래 FEALAC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회원국간 정보교류 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FEALAC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였고, 2011년 6월 사이버사무국 주최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 FEALAC 24개 회원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FEALAC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5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양 지역간 중장기적 발전 로드맵 도출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는 'FEALAC 비전그룹'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로 비전그룹의 설립과 2012년 출범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8차 정치·문화·교육·스포츠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브라질과 함께 차기 과학·기술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에 선임되었다.

한편 FEALAC 국별협력사업으로 2011년 9월 '제3차 FEALAC 최신이슈(이러닝)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회원국간 이러닝(e-learning) 개발 정책을 공유하였고, 11월에는 서울에서 'FEALAC 전통 스포츠 육성 포럼'을 개최, 회원국 전문가간 전통스포츠 육성 성공사례 및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중미통합체제와의 협력

중미통합체제(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는 중미지역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93년 2월 정식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중미통합체제와 그간 총 3차례의 정상회담과 10차례의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제37차 SICA 정상회의(2011.7.22)시 한국의 역외옵저버 가입안이 최종승인된 것과 관련, 2011년 10월 13일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 10차 한·SICA 대화협의체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 대표들이 이를 위한 조속한 협정 체결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SICA 협력사업인 '중미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통합과 발전 강화' 시행 MOU를 체결하였다.

4)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와의 협력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중남미지역 경제발전과 역내 및 역외 국가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1948년 설립된 UN 산하 지역경제위원회로서, 우리나라는 44번째 회원국으로서 동 위원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해마다 인턴들을 파견해 왔다.

2011년 11월 3-4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ECLAC 경제협력 심층세미나에서는 개발, 녹색성장, 경제협력을 주요 주제로 하여 한·중남미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5) 2011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외교통상부는 5월 18-19일 양일간 서울에서 2011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중남미 11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니카라과, 에콰도르)의 통상, 자원, 인프라, 환경 관련 장·차관급 인사 11명 및 우리나라 관계부처의 장·차관, 주요 기업 및 학계 인사 등이 대

거 참석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중남미간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녹색성장, 인프라·플랜트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 지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남미 고위인사들은 우리 기업들과의 별도 일정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이래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력 채널로서, 외교통상부는 향후 중남미 지역과 협력을 촉진시킬 새로운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 한·중남미 경제협력 그린카라반

외교통상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1.7-14일간 브라질, 칠레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친환경산업 협력을 위해 민·관 합동 「중남미 그린 카라반」(단장 :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공공기관 전문가와 20여개 민간기업 담당자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 카라반은 방문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주제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라반 행사시 현지 기업과 우리측 기업들간에 활발한 네트워크 미팅이 이루어져 상호 협력 가능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문국 고위인사들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앞선 환경산업 기술에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7)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외교통상부는 중남미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남미 자원협력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동 센터는 홈페이지 <energia.mofat.go.kr> 운영 및 월간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 발간을 통한 각종 자료 제공,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연구 활동, 이메일 및 전화 상담을 통한 기업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중이다.

또한 에너지·자원 관련 프로젝트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11년말부터 센터의 명칭을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기존 에너지·자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플랜트 영역으로까지 확대해가고 있다.

8)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외교통상부는 국내에서의 중남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남미 전문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중남미에 위치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1년도에는 미주기구(OAS), 중미통합체제(SICA),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중미사법재판소(CCJ) 등 8개 지역기구에 총 18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2009년 이래 총 52명의 인턴을 파견해 오고 있다.

9) 남미 중점협력대상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외교통상부는 2011년부터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중점협력대상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 유망 협력분야(IT,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중점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협력사절단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및 페루에 파견하여 전자정부(e-Government), 차세대 통신망, 디지털병원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동반협력사절단을 페루, 베네수엘라 및 파나마에 파견하여 양국간 미래 유망 협력분야에 대한 상호간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중점협력국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보건, 교육과학 및 ICT 분야에서의 발전 경험을 중남미 지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중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지역은 21세기 들어 정세 안정과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고,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아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인사교류 및 정부간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통해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아중동지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플랜트, 투자, IT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중동국가와 포럼 개최 및 공연단 파견 등 문화교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1. 정상외교

1) 한·UAE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 12-14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공식방문하여 3월 13일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9년 12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며, 에너지, 건설 등 경제·통상, 국방,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UAE 정부는 한국의 ‘아크’ 부대가 원할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협력의 외연이 ‘아크’ 부대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미래 신성장 동력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편리한 시기에 칼리파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칼리파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금번 한·UAE 정상회담은 2009년 12월 27일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서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한·이라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4월 27-30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말리키(Nouri Kamil AL-Maliki) 총리와 4월 28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경제, 교육, 문화, 자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및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이라크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한·이라크 정상회담(2011.4.27-30, 서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호혜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라크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한민국의 경험 및 기술 전수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말리키 총리는 이라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개발계획’을 소개하며 석유·가스, 전력, 농업, 교육 등 다양한 이라크내 사업에 우리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대통령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에티오피아)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2-11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였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5일 남아공 더반에서 주마(Zuma)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7월 6일 IOC총회가 열린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역 · 투자 증진, 에너지 · 자원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한반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G20 개발의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7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 한 · 남아공 정상회담(2011.7.5, 더반)



| 한 · DR콩고 정상회담(2011.7.7, 킌사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이 콩고민주공화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개발전략 수립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연 · 자원 잠재력이라는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호혜 원칙하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 · DR콩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하였고,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국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참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에티오피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인 「성장과 변화 계획(GTP :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녹색성장 비전,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적

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를 넘어 무역증진, 투자 증대, 자원 및 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참전기념비에 헌화하였으며, 참전용사들과 다과회를 가지며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라스데스타 병원(Ras Desta Hospital)과 명성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의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9일 아디스아바바의 '케베나' 마을과 10일 오로미아주 '가레아레라'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생활환경 개선 활동 및 의료봉사 활동에 참가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 에티오피아 봉사활동(2011.7.10, 가레아레라 마을)

4) 한·르완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 BEXCO에서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2011년 11월 29일-12월 3일간 방한한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11월 30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정상회담 이후 상호공관을 개설하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르완다의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



| 한·르완다 정상회담(2011.11.30, 서울)

분야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카가메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IT강국이 된 것을 평가하며 르완다도 한국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향후 동부아프리카의 IT허브이자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핵심은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라고 소개하며, 르완다 국립대 정보통신기술 공학부 건립사업 등을 통해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양국이 개발협력 등 국제이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5)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개발협력, 경제·통상, 인프라 및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금번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2011.11.28, 서울)

방한 시 '산업협력 MOU'가 서명되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투자유치, 특히 섬유·피혁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 증진 계기가 마련되었다. 멜레스 총리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참전용사 후손 약 300명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이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육·문화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멜레스 총리의 「부산세계 개발원조총회」 참석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G20 개발의제 등 국제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김황식 총리는 2011년 5월 25-26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 참석 계기 아비그도 리버만(Avigdor Lieberman) 이스라엘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 한·이스라엘 양국 관계 및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총리는 한국과 이스라엘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 하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0년 6월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리버만 부총리 또한 양국간 경제관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또한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 정세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장관급 외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1년 2월 5-7일간 UAE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 예방 및 압둘라 (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치, 군사, 문화,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회에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 이송을 위한 UAE 항공기 제공에 대한 우리정부의 사의를 표하였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유례가 없다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될 것을 희망하였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농업협력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추진을 제안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1년 2월 8-9일간 알제리를 방문하여 무라드 메델치 (Mourad Medelci) 외교장관과 한·알제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산업협력, 개발협력, 원자력협력,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그간 양국 관련 기관간 협의하여 온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 건립, 산업협력기금 조성,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농수산업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1년 4월 2-9일간 아프리카 3개국(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을 순방하였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에티오피아 방문은 역사상 최초였으며, 가봉의 경우 1980년 노신영 외무장관 이후 30여년만의 방문이었다. 김성환 장관은 순방 시 퉁기(Paul Toungui) 가봉 외교장관, 탐브웨(Alexis Thambwe Mwamba)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Desalegn Boshe) 에

티오피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아프리카·한반도 등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봉고(Ali Ben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무지토(Adolphe Muzito) 콩고민주공화국 총리, 멜레스(Meles Zenawi) 에티오피아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을 예방하고, 장핑(Jean Ping) AU(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순방 시 가봉에서는 봉고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석유 등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인프라·자원 연계사업, 에티오피아에서는 참전 60주년 계기 참전 용사 지원 사업 등 양자 간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현지 교민·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신흥 시장이자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성환 장관, 봉고 가봉대통령 예방(2011.4.4, 리브르빌)



김성환 장관, 무지토 DR콩고 총리 예방(2011.4.5, 킌사사)



김성환 장관, 멜레스 에티오피아 총리 예방(2011.4.7, 아디스 아바바)

3) 특사급 외교

최병국 대통령 특사는 2011년 5월 28일-6월 1일간 나이지리아와 세이셸을 방문하여,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나이지리아 대통령 및 제임스 미셸(James Michel)

세이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최병국 특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조나단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나마디 삼보(Namadi Sambo) 부통령 등을 면담하였다. 최병국 특사는 삼보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조나단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삼보 부통령은 양국 간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최병국 특사는 세이셸에서 제임스 미셸(James Michel) 세이셸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였다. 미셸 대통령은 우리의 2013-14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후보 지지 및 2012년 여수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재확인하였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 관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사는 또한 패트릭 허미니(Patrick Herminie)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한·세이셸 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였다.

이재오 대통령 특사는 2011년 7월 9일 남수단 독립기념행사에 참석, 「남수단 공화국(The Republic of South Sudan)」의 독립을 축하하고 남수단을 주권독립국가로 승인하는 내용의 우리 대통령 명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덩 알로 쿨(Deng Alor Kuol) 남수단 외교장관과 함께 수교 의정서에 서명하여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05년 남·북수단간 내전 종식을 위해 체결한 포괄적 평화협정(CP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에 따라 2011년 1월에 실시된 남수단 주민투표 결과 98.83%가 독립에 찬성함에 따라 2011년 7월 9일부로 분리독립하게 되었으며, 남수단의 독립은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김장수 대통령 특사는 중동국가와의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8월 23-31일간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했다. 김장수 특사는 2010년 주한 요르단대사관 설치 및 2012년 양국 수교 50주년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요르단 우호관계를 평가하는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요르단간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장수 특사는 한·레바논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대통령 명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와 더불어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병중인 우리 동명부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3. 협의체 및 협의회

1) 제5차 한·남아공 정책협의회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011년 6월 9-12일간 남아공을 방문하여 6월 10일 프리토리아에서 제5차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모틀란테 (Kaglema Petrus Mothlanthe) 남아공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를 예방하였다. 제5차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박석환 차관은 프랑스 만(Marius Llewellyn Fransman) 남아



박석환 제1차관, 한·남아공 정책협의회(2011.6.10, 프리토리아)

공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과 함께 양국 간 정치·안보, 에너지·무역·투자,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분과별 실무협의회도 개최되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부산세계개발원 조총회(HLF-4)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남아공 측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원자력 협력협정 발효에 따른 양국 간 원자력 분야 인력 교류 및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참여 등 협력 방안과 남아공에 대한 지식공유사업(KSP) 실시, 해외농업 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등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 공유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 제2차 한·카메룬 정책협의회

2011년 6월 13일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아이베 아이시(Eyebe Ayissi) 카메룬 대외관계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카메룬 정책협의회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수석대표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자



한·카메룬 정책협의회(2011.6.13, 야운데)

원·인프라, 개발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박석환 차관은 로랑 에소(Laurent Easo) 대통령실 사무총장을 예방하여,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및 2013-14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3) 제3차 한·프랑스 대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정태인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은 9월 22일 서울에서 프랑스 외교부의 ‘올리비에 샹바르(Olivier Chambard)’ 아프리카·인도양 부국장과 함께 제3회 한·프랑스 아프리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평화정착, 해적퇴치 등 아프리카에서 양국 간 공조 가능한 협력 분야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마다가스카르 등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4) 리비아 재건을 위한 고위급 회의

리비아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가 2011년 9월 1일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의 공동 주최로, 김성환 장관을 포함한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 또는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가 향후 리비아 정치 체제 전환 및 국가 재건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리비아 해외자산 동결 해제 등 국제사회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2011년 9월 20일 뉴욕 UN 본부(UN 총회 개최 계기)에서 리비아 지원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on Libya)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무스타파 압둘 잘릴(Mustafa Abdul Jalil) NTC 위원장,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20여개국 정상들과 김성환 장관 등 외교장관들을 포함하여 70여개국 및 10여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NTC의 지도력 평가 및 재건계획 지지, NTC의 유엔 대표성 인정 및 유엔 리비아 지원단(UNSMIL: United Nations Support Mission in Libya) 파견 결의 환영, 국제사회의 리비아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유엔의 중심적 역할 지지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리비아 국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에 합의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5) 제1차 한·미 대아프리카 고위급 회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진출 후발주자로서 선진 진출국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21세기 신성장동력인 아프리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對아프리카 외교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미국과의 정책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송용업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장과 미국 자니 카슨(Johnnie Carson)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미 對아프리카 고위급 회담(ROK-U.S High-level Discussions on Africa)이 2011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한·미 對아프리카 고위급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對아프리카 정책, 아프리카 정세 전망, 위기상황에서의 재외국민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對아프리카 정책 추진에 있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6) 제4차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한·중·일 3국 외교부의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제4차 「한·중·일 對아프리카 정책 대화(Trilateral Policy Dialogue on Africa)」가 12월 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대표로 정태인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은 쿠사카 수미오 외무성 아프리카국장, 중국은 루 사예 외교부 아프리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일 對아프리카 정책대화」는 3국간 아프리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안보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시작되었다. 금년도 정책대화에서는 한·중·일 3국의 對아프리카 정책방향, 내년도 對아프리카 포럼 개최 계획, 3국의 대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 관계, 남수단의 국가건설 지원 및 소말리아 문제 등 아프리카 주요 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4. 우호협력 증진 외교

1) 제4차 아랍문화축전

제4회 아랍문화축전이 2011년 6월 2~5일간 코엑스에서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행사의 「아랍문화·관광 특별전」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우리국민에게 다양한 아랍문화를 소개하고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전은 총 12개 아랍국가와 팔레스타인이 참가하여, 각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오만 사진전시회’에서는 오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200여점의 사진작품이 전시되었고, ‘오만 패션쇼’를 통해 컬러의 색감을 중요시하는 오만의 ‘전통의상’과 ‘히잡’ 등 다양한 의상이 소개되었다. 특히 1930년대 설립된 팔레스타인 공연단 「Sareyyet Ramallah Troupe for Music and Dance」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 음악과 무용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아랍문화의 정수를 선보였고 아랍음식, 헤나, 디지털 아랍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아랍 전통공연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의 생활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

제8차 한·중동협력포럼이 2011년 10월 14일 제주평화연구원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에미리트전략연구소(ECSSR: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중동협력포럼은 2003년부터 개최되어 한·중동간 상호 이해증진 및 각계 지도층 인사간 네트워크의 장(場)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제8차 포럼에서는 ‘변화의 시기에 있어 한국·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관계 강화’라는 주제 하에, 풍부한 자원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GCC 국가들과 한국간의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3) 제4회 한·아랍우호친선 카라반

제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2011년 10월 17일~12월 9일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6개국 및 팔레스타인에서 한국과 아랍 양측의 정부 부처 및 문화·예술 단체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한·아랍의 상호 이해 및 소통 증진을 목표로 개최된 금번 카라반 행사는 행사 대상국 별로 태권도시범, 비보이와 사물놀이의 합동공연, 제주도민속무용, 한복패션쇼, 관광사진전, 한국영화제, 무역투자상담회 등의 행사가 선별적으로 개최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아랍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4) 한·아랍 차세대 지도자 초청 간담회

아랍 차세대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2011년 12월 27일 주한외교단 및 한국내 아랍국 유학생 및 한국 대학생대표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 간담회는 한·아랍 차세대 지도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아랍 청년들간 교류의 장을 열어 친한 기반 및 양측 미래지도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1. APEC 정상회의

1)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및 우리 활동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은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라는 주제하에 △지역경제 통합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 수렴 및 협력 강화 등 세가지 의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의제들을 중심으로 11월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소매 물품에 대한 면세, 시범용 친환경 첨단자동차에 대한 면세 및 수입절차 간소화,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 장벽 철폐 등 역내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접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미국 주도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선진회원국들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ASEAN 회원국 등 개도회원국들이 주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구체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고위 관리회의, 5월 통상장관회의, 합동장관회의 및 분야별 각료회의¹⁾ 등을 거쳐 회원국들간 합의점을 모

¹⁾ 2011년에는 상기 세가지 중점 추진 과제 이외에도 구조개혁, 식량안보, 중소기업 이슈, 여성과 경제, 재난 대응, 불법별목 등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중소기업·통상장관 합동 회의(5.20, 몬테나), 식량안보고위급 대화(5.18, 몬테나), 제1차 산림장관회의(9.6, 베이징), 제7차 교통장관회의(9.13, 샌프란시스코), 제1차 여성과 경제고위급 대화(9.16, 샌프란시스코) 등 다양한 분야별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색해 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11월 호놀룰루 정상선언문과 합동장관회의 각료선언문에 반영되었다.

2) APEC 주요 의제별 합의 내용과 우리의 활동

(1)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 확대

주요 합의 내용

의장국인 미국은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될 차세대 무역 투자 이슈를 정의²⁾, 발굴, 추진해 나가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비차별적·시장주도적 혁신정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망에의 참여 등 두 가지 이슈가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선정되고, 이에 대한 주요 원칙과 핵심 요소를 포함한 제안문이 호놀룰루 정상 선언문에 최종 반영되었다.

아울러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급망연결 개선 목표(2015년까지 공급망 비용, 시간, 불확실성의 10% 축소)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 및 통관서류 간소화를 위한 최소 기준(De Minimis) 설정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개도회원국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우선 선도국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리를 포함한 10개국이 선도국에 가입하였다.

우리의 활동 내용

우리나라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여 이러한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었으며, 우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정책대화³⁾를 개최하여 다수 회원국들로부터 지지와 참여 의사를 확보하였다.

2)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코하마 비전은 APEC이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가 포함해야 할 차세대 무역 투자 이슈를 정의, 형성, 다루어나가라고 지시함에 따라, 2011년 의장국인 미국은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전통 무역 이슈에 해당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 이슈(공급망 연결, 서비스, 투자, 통관절차 등)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무역이슈(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안보, 클라우드 컴퓨팅, 노동, 환경)로 정의

3)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의 방안의 일환으로 회원국간 FTA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FTA 역량강화사업을 우리나라의 주도로 회원국들의 폭넓은 참여하에 2012년부터 다개년으로 실시 예정. 제3차 무역투자위원회 계기에 FTAAP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등 다수 회원국들로부터 지지 또는 참여 의사 확보

미국이 제안한 소액수입상품 면세최소기준(De Minimis) 설정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이 관련 제도가 없거나 적용 방식이 다르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5월 통상장관회의시 각국의 모범사례를 감안하자는 우리의 중재안이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에 반영되었으며, 우리는 현행 De Minimis 제도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도국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

(2) 녹색성장 촉진

주요 합의 내용

미국은 녹색성장촉진 의제 아래 친환경제품에 대한 역내 시장접근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재제조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철폐,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시범주행용 친환경첨단자동차에 대한 면세 및 수입 절차 간소화, △APEC 에너지 효율성 제고, △불법벌목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는 선·개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으며, 11월 정상회의 직전에 회원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고, 그 대상 환경상품 품목을 2012년에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합의하였다.

우리의 활동 내용

우리는 2011년 APEC 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인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환경상품의 교역확대가 역내 녹색성장 촉진과 환경상품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각국의 민감 품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 주도의 그린이니셔티브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합동 각료회의 선언문 및 중소기업 장관회의 선언문에 관련 문안을 반영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회의 APEC 회원국 정상에 대한 권고문에도 그린이니셔티브 지지 문구를 반영시켰다.

4)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15만원 이하의 경우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실시

(3) 규제 수렴 및 협력

주요 합의 내용

미국은 역내 경제성장과 통합을 위해서는 국경간 무역·투자 장벽 해소 뿐 아니라, 회원국들간 규제의 협력과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범규제 이행강화, APEC 규제 협력 계획 채택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 제안에 대해 많은 APEC 회원국들이 공감 하였으나, 회원국들간 경제발전 정도, 국내법체계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제안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활동 내용

우리는 APEC 정상회의, 합동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를 우리 규제 개혁 성과 및 모범 규제 관행을 소개하는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4) 여타 이슈

또한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⁵⁾ 이행 계획 수립, 재난대응을 위한 고위급 정책 대화 개최를 통한 선언문 채택, 열린 정부 및 경제성장을 위한 고위급 정책 대화 개최를 통한 선언문 채택, 여성과 경제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채택, 식량안보 고위급 정책 대화 개최 등을 통해 민관합동의 식량안보정책대화(PPFS) 설립 합의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5) APEC의 제1차 구조개혁 5개년 계획(LAISR)이 2010년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제2차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인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이 채택됨. 2011년 APEC 회원국들은 ①시장의 개방성, 기능성, 투명성 및 경쟁성 제고, ②금융시장 규제의 기능성과 효과성 제고, ③노동 시장의 기회, 훈련 및 교육 강화, ④지속적인 중소기업 개발, 여성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증진, ⑤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이행할 회원국별 구조개혁 이행 계획을 제출기로 함.

아울러 신규 회원국 가입⁶⁾ 관련, 각료회의 계기 회원국 확대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호놀룰루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양국간 2010년 11월 이후 추진되어 온 양국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여행객들이 출입국 관리의 대면심사 없이 상호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APEC 차원에서 추진기로 한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였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외교장관회의가 2011년 6월 5-6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어 비전통적 안보문제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세계경제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주요 국제정세, ASEM의 미래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회의 결과문서로서 의장성명(Chair's Statement)과 의장성명의 부속문서인 'ASEM 회원국 확대에 관한 고위관리회의 보고서(ASEM Senior Officials' report to the FMM10 on the enlargement of ASEM)' 및 'ASEM 작업방식에 관한 비공식문서(Non-paper on ASEM Working Methods)'를 채택하였다.

김성환 장관은 지역정세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선도발언을 통해서도 아시아·유럽간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장성명을 통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테러, 해적, 에너지 안보, 수자원 관리, 식량 안보, 재난 관리/방지,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유럽간 정책 공조가 필요함

⁶⁾ 아시아 및 남미지역 일부 국가들이 APEC에 신규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1997 밴쿠버 정상회의시 회원국 신규 가입 논의를 10년간 동결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 시드니 정상회의시 APEC 개혁과 무역·투자 자유화 등 기존 작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가입 논의를 2010년까지 동결기로 하였음.

을 인식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16-17일간 제3차 ASEM 수산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수산포럼의 주제는 ‘수산업 및 수산양식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으로, 기후변화, 친환경 양식의 발전, 국제사회의 수산분야 공조방안 등 수산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5-6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ASEM 정상회의까지 의제선정, 회원국 확대문제 등 ASEM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3.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우리나라는 흑해경제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1월 26일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에 “부문별 대화 동반자”(SDP: Sectoral Dialogue Partner) 지위로 가입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 해 동안 흑해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1년 6월 「우리나라와 흑해지역 협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하에 한·흑해지역협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흑해지역간 경제 및 산업협력 강화방안, 흑해지역의 다문화 정체성과 그 역사적 배경, 흑해지역의 에너지 안보 및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안보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9월에는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보화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12개국 12명이 참석, 한·BSEC ICT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기술 세미나, 민관협력을 위한 기업협력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11월 BSEC 고위관리위원회 참석, 12월 BSEC 외교장관회의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對)흑해지역 협력 의사를 피력하였고, 한·BSEC ICT 작업반 간 협력을 검토하는 등 향후 협력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흑해지역은 풍부한 자원, 주요 에너지 수송로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정학적 요충

지로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는 동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BSEC 가입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수송로에 위치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흑해지역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는 흑해 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확대를 위해 1992년 6월 25일 터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정회원국은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몰도바, 세르비아 등 12개국이며, 3억5천만 명의 인구, 대외교역 규모 연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4.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우리나라는 2011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의 고위관리 회의(SOC: Senior Officials' Committee) 및 특별실무그룹회의(SWG: Special Working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태국에서 개최된 국제 마약 법집행 연수 과정에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참가를 통해 대중앙아·대터키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CICA 4대 협력분야(인간, 경제, 환경, 비전통적 안보) 26개 세부의제 중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조정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5만불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통해 CICA 프로세스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예방을 목표로 1992년 10월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회원국은 23개국이며, 사무국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소재한다(아스타나로 이전 예정).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옵저버로 참여해오다 2006년 제2차 정상회의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10년부터 2년간 터키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CICA내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CICA의 발전 및 회원국간 지역안보 협의,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신뢰구축 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발적 기여금 지속 납부 및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한·ASEAN / ASEAN+3(한·중·일)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국은 2011년도에도 한·ASEAN,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각급 회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제14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ASEAN 한국대표부를 개설하여 상주 대사를 파견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ASEAN FTA체제 지속발전을 기반으로 양측간 무역투자 등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4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 정상들과 함께 ASEAN+3 차원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식량안보, 금융 위기, 경제 통합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ASEAN+3 협력의 미래방향 설정을 위해서 우리측이 2010년도에 제안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6차 EAS 정상회의에는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기존의 참여국과 더불어 미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들과 재난관리·비확산·해양안보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제반 현안에 대해 참여국 정상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EAS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협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EAS 선언」이 채택되었다.

6.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간 정치·안보 분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외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2011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8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EU 등 27개국이 참가하여 지역·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해양안보, 마약, 재난대응 등 ARF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반 안보협력 사업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7.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중앙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범아시아 협의체로 2002년 6월에 발족하였으며, 한·중·일, ASEAN,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0월 10-11일간 쿠웨이트에서 ‘더 나은 아시아 협력의 미래를 위해(Toward a better future for Asian cooperation)’라는 주제로 제10차 ACD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경제, 환경, 정보통신, 문화 등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협력 및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